



불교인재개발원은 설립대회를 앞둔 6월 20일 '대승기신론과 CEO 철학'을 주제로 정책 포럼을 열었다.

“바로 보고 바로 알아야 CEO”

불교인재개발원 '대승기신론과 CEO 철학' 포럼서 허달 씨 강조

경제적 이익을 발생시켜 돈을 벌어야 하는 기업이 '무소유'로 상징되는 불교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나아가 절대적인 정신의식 '일심(一心)'의 환원이 곧 깨달음이라고 설파한 <대승기신론>이 CEO의 경영 철학에 어떤 가르침을 줄 수 있을 것인가.

조계종 중앙신도회 부설 불교인재개발원이 설립대회를 앞두고 개최한 정책포럼에서 '대승기신론과 CEO 철학'을 발표한 허달(63) 한국화인제미칼 상근고문은 "CEO라면 부처님의 가르침을 반드시 알아야 한다"며 "부처님은 사대를 불문하고 가장 훌륭한 리더의 면모를 갖췄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부처님의 리더십 벤치마킹
 <대승기신론>에서 말하는 신(信)은 맹목적 믿음(belief)이 아니라, 무엇이든 철저히

파진 후에 얻는 확신(conviction) 또는 신념(confidence)을 뜻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오늘날 CEO들에게 가장 필요한 요소입니다."

그 근거는 무엇인가. 허달 한국화인제미칼 상근고문은 "경영자의 철학 속에는 경영의 목적을 가능하게 하는 '무엇'이 있어

원-원 되게 하는 지도자 리더십은 대승기신론의 힘

"구도자나 CEO 모두 바로보기(正見)가 생의 나침반"

야 하는데, 그 '무엇'은 기업의 모든 이해 당사자들로 하여금 지속적으로 원-원(win-win)의 관계를 이루어나갈 수 있게 한다"며 "그 '무엇'은 CEO의 리더십이라 할 수 있으며, <대승기신론>에서 제시한 신(信)과 상통한다"고 밝혔다.

리더십을 강연의 화두로 끌어낸 허달 고문은 대승기신론과 CEO 또는 리더의 연관성을 '바로 보기(正見)'에서 찾았다.

<대승기신론>이 구도자에게 정견(正見)을 세워줌으로써 불생불멸, 진여를 향해 생멸세계를 건너도록 인도하는 나침반 역

할을 하고 있음을 상기시키고, '대승기신론'이 구도자에게 바른 길을 제시하듯 CEO의 리더십도 경영의 방향을 바르게 설정하는 나침반과 같다"는 것이다. 따라서 "CEO는 '자신-인간관계-상호의존성의 시너지'로 이어지는 인간관계원칙을 바로 보고, 알고, 실행하기 위해 리더십을 함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달 고문은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을 저술한 리더십의 권위자 스티븐 코비 박사의 사례를 부처님의 리더십을 가장 가깝게 벤치마킹한 사례로 꼽았다.

◇win-win 마인드
 <대승기신론>에서는 생로병사의 근원적 괴로움에서 벗어나기 위한 대승의 믿음으로 신앙과 신심을 들었다. 신앙은 불보살과 선지식에 대한 믿음이고, 신심은 자기안에 본래부터 갖추어져 있는 진여불성(眞如佛性)을 믿는 것이다. 괴로움의 자각으로부터 출발한 믿음이 바른 견해를 갖추었을 때 신앙과 신심을 일으키게 되고, 비로소 수행이 시작된다고 보았다.



허달

1966년 SK화학사업부(당시 대한석유공사)에 입사해 32년간 근무했다. 1998년에는 SK이데미에서 기업문화와 리더십·변화관리 과정을 강의했으며, 2002년 다시 경영일선으로 돌아왔다. 미국 컨설팅회사인 Chem Systems 한국대표와 한국화인제미칼 대표이사 사장(2003~2006)을 역임했다. 서울 불이선원 원각학회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불교인재개발원 설립에 참여하고 있다.

허달 고문은 대승의 믿음을 일으키는 과정을 CEO들의 필수코스인 '7Habis' 리더십 프로그램과 연관시켰다.

"의존성의 단계를 '네 탓이오'로 접철된 이기심 가득한 중생계라 한다. 독립성의 단계는 구성원 하나하나가 리더십을 연마하여 일정 수준의 주도성을 확립한 개인승리의 단계, 상호의존성의 단계는 구성원 모두가 원-원(win-win)의 마인드를 갖고 대인관계 리더십을 구현하여 그 성과와 시너지를 공유하는 자리이타의 단계라 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CEO에게서 7H 가운데 '내 인생은 내가 선택한다' '이것이 내가 선택한 삶이다'라는 확신을 발견할 수 있다는 허달 고문은 끊임없이 자신과 외부세계를 바로 보고 바로 아는 연습을 하는 것은 수행과 다를 바 없다고 설명했다.

박봉영 기자 bpark@buddhapia.com

부다의 경제학(11)

그릇된 집착

우리는 황금만능주의를 비판한다. 돈을 벌기 위해 모든 윤리, 도덕을 팽개치는 세태를 한탄한다.

그러나 우리들은 사람들이 이렇게도 깊이 돈에 탐닉하고, 집착하는 이유에 대해 깊게 생각하고 있지 않다. 단지 더 좋은 집에 살기 위해, 더 좋은 옷을 입기 위해, 더 맛있는 음식을 먹기 위해서 라는 설명으로는 많이 부족하다.

언론에 구체적 통계치가 공개되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 사회의 수많은 사람들이 거의 기아선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어린 학생들이 돈이 없어 끼니를 제대로 해결하고 있지 못하고 있으며, 수많은 가정들이 가난

나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외적, 물질적 조건들이 나의 생존을 위해 유리하게 만들어지기를 원한다. 그렇다면 모든 것을 나의 생존에 유리하게 만들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바로 돈을 버는 것이다. 돈으로 모든 것을 움직일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세상을 내 마음대로 하기 위해서는 무한대의 돈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그러나 세상의 모든 돈을 다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세상을 내 마음대로 할 수는 없다. 돈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세상에 너무나 많기 때문이다.

세상의 돈을 다 가져도 죽음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그

재물 다 가져도 죽음은 피할 수 없는 것

일체무상 알때 우리의 경제 개념도 변해

불성 찾아 영원한 생명 얻는 노력해야

으로 파괴되고 있다.

이 어려운 이웃들에게 물어보라. 돈이 왜 필요하냐고. 살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다고 말할 것이다.

이번에는 부자에게 돈이 왜 필요하냐고 물어보라. 여러 가지 답을 말하겠지만 결국에는 자신이 살기 위해서라는 이유가 가장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을 것이다.

우리 인간은 죽지 않기 위해서 영원히 살기를 원한다. 이것이 인간의 가장 큰 욕구이다.

리면서도 어리석게 돈을 추구하면서 살고 있다.

우리의 돈에 대한 욕심은 그 끝을 모른다. 우리는 결코 만족할 수도 없다. 죽는 그 순간까지 죽지 않기 위하여 돈을 추구하게 되는 것이다.

일체가 무상(無常)하여 무아(無我)이고, 그래서 일체가 고(苦)라는 것을 깨닫고 되면 우리의 경제활동, 특히 돈을 대하는 태도는 근본적으로 변화하게 될 것이다.

외적인 조건을 변화시켜 나의 삶을 연장시키려는 노력 대신에 자신 안의 불성을 찾아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는 노력으로 바뀌게 될 것이다.

일체가 무상(無常)하여 우리가 생로병사의 고통을 면할 수 없고, 무아(無我)이기 때문에 죽을 나도 없지만, 무명(無明)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어떻게 하면 죽지 않을까 전전긍긍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다.

우리의 경제활동은 자신의 불성을 찾아 떠나는 여정의 여비를 마련하는 노력으로 전환될 것이며, 그러한 경제 활동은 충분함을 아는 그래서 만족할 줄 아는 삶과 연결될 것이다.

의식을 하고 있든, 못하고 있든 모든 행동의 근저에는 죽음의 그림자가 깊게 드리워져 있다.

그렇지만 이대로 시시각각으로 다가오는 죽음 앞에 무력하게 서 있을 수만은 없는 것 아닌가. 무엇인가 대비책을 마련해야 하지 않겠는가.

우리의 경제활동은 자신의 불성을 찾아 떠나는 여정의 여비를 마련하는 노력으로 전환될 것이며, 그러한 경제 활동은 충분함을 아는 그래서 만족할 줄 아는 삶과 연결될 것이다.

현명한 사람은 연기법과 사성제를 깨달아 죽음을 떠나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그 도리를 깨닫지 못하고 자신의 밖에 있는 물질에서 해답을 구한다.

어리석은 우리는 죽지 않기 위하여

돈에 대한 집착, 나의 삶에 대한 집착이기에 대한 집착, 나의 삶에 대한 집착이다.

그러나 그 집착은 내가 진실로 원하는 것을 가져다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릇된 집착이다. 불성을 찾고 열반에 도달하고자 하는 치열한 노력만이 우리의 만족할 줄 아는 경제활동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구병진(경영학 박사)

클릭!
 불교문화상품

불교문화상품전문몰 mahamal.co.kr
 상품문의 : (02)732-1520

연당초 우산

연당초 우산은 불교의 상징인 연꽃문양을 현대적 감각으로 되살린 실용제품입니다. 우산의 연꽃문양은 문화재전문위원인 청원 스님이 개발했습니다. 동판에 무늬를 새겨 원단에 찍어내는 나염우산이며, 재질은 실코튼을 사용하였습니다. 우산대와 손잡이는 단단한 원목을 사용해 매우 실용적입니다. 100개 이상 대량으로 주문할 경우 사철명 또는 단체명을 무료로 새겨 드립니다.

가격: 장우산 18,500원
 2단우산 17,650원

소재화 수월관음도

가정의 재난과 고통과 액운을 소멸

세화에 감탄을 한다. 험한 세상 자손만대로 인녕과 번영을 지키는 발자과정의 수호신인 수월관음도는 조계종 중정상과 대통령상, 한국불화대전 대상을 수상한 불화의 명장인 신법성 金義植 화백께서 3년간 기도와 영험으로 그린 불화로 100% 천연코튼 판화지에 28도 판화와 비틀린 화사를 사용해 자자손손 후손에게 팔려줘도 변색되지 않게 제작 했으며 최고급 2단 볼록표구로 거실 또는 사업장에 모시면 대단히 품위가 있는 세계가 격조있는 영험의 불화다.

발자과정의 3대 가보중 첫번째인 수월관음도는 뒷면에 카펫과 발광사의 보승서와 자자손손 후손에게 팔려줄수있는 소장인원이 있다. 영험이 나타나는 입소문이 퍼지면서 카펫과 불광사에는 가보로 구입하는 분과 아들딸 자녀에게 한 짐씩 주기도 하고, 세집이사 선물로 구입하기도 하는 등 지난번 KBS 역사 스페셜 수월관음도 방영 후 전화신청이 쇄도하고 있다.

전화로 신중하며 특급택배로 보내주고 있으며 정만불광을 마친 수월관음도를 받으면 복유재계하고, 정한수놓고, 삼배하면서 갖가지 소원기도 한다는 거실 또는 사업장에 걸린 영험이 시작된다. (가격 195,000원)

■문의전화 02-741-4488
 농협 032-12-193445 이상하
 http://club.cyworld.com/kapilla

세로 88cm 가로 58cm

불자가정의가보로 안녕과번영의수호신

무명의 어둠을 밝게 비추주는 수월관음도는 세상 사는동안 모든 재난과 고통과 액운을 소멸하고 오는 생애 좋은과보와 무량대복을 주고자하는 자비로운 구제자의 영험을 보여주는 소재화다.

소재화인 수월관음도는 받아보는 순간 누구나 두번 감탄을 한다. 첫째는 처음 느끼는 영험에 감탄을 하고 둘째는 섬

용어해설

- 수월관음도(水月觀音圖) 관세음보살 부처님의 모습에 그윽한 연꽃위에 비치는 달처럼 무명의 어둠에 있는 중생들에게 자비로운 구제자의 모습을 보여주는 불화다.
- 소재화(素災畵) 불교에서 소재화란 모든재난과 고통 액운등을 소멸하고 예방한다는 불화 그림을 말한다.

평생 부자지갑

옴마니반메흠 평생福 지갑

존경하는분께 사업 성공의 선물!
 사랑하는 아내에게 평생 부자의 선물!

놀라운 재물과 재운을 얻고 문제는 팔길상이 해결!

남성용충지갑 (검정,분홍)
 여성용충지갑 (적색, 진보라색)

점안식과 축원불공 마쳐 지나는 순간부터 영험의 신통력!

옴마니 반메흠, 육자대명왕진언은 쇠가모니 부처님께서 사위국 기다림 신중에 계시 때 가난으로 힘겹고 고통속에 있는 중생과 병고로 시달리고 있는 중생들을 구제하기 위한 불공의 비방으로 옴마니반메흠 육자대명 왕진언을 선행했다

그후 가난한 중생은 평생부자로 공덕을 쌓고 살았으며 병든자는 인기 어려움정도도 건강을 회복하였다. 불경에 입각해 법구를 전문으로 제작하는 카펫과 불광사에서 빨리 일어나

라는 뜻에서 700원의 축원기도와 영험으로 제작된 옴마니반메흠 평생 복지갑은 영험이 나타나게 점안식 까지 마쳐 출시 30일만에 영험을 받은 불자들로부터 입소문을 통해 구입 문의가 쇄도하고 있으며 자녀들에게 하나씩 줄려고 몇 개씩 구입하기도한다.

최고급 천연가죽에 은나노치리를 한 옴마니 반메흠 평생 복지갑은 일반지갑과는 비교될 수없게 제작했으며 지갑앞면에는 음양의 조화로 만사가 행통되는 '육자대명 왕진언'을

넣고 지갑내부에는 건강장수의 팔길상'반장'을 넣었으며, 풍서남북의 돈을 모으고 가지고 있는 돈이 헛되이 나가지않는 팔길상'보병'도 넣었다.

옴마니 반메흠지갑을 여성이 지닐때 가장이 번영하고 건강하며 금전적 어려움이 해결되어 항상 중요하게하고 음양의 조화로 부부관계가 놀랍게 회복되는 비방의 영험도 나타나게 했다.

'카펫'은 쇠가모니 부처님께서 탄생하시고 왕세자를 하신 고대국가 이름이며 전화로 신성할때에 지갑사용하실분의 생명과 생년월일을 알려주면 100원 새벽 특별 축원불공을 해드립니다.

고급케이스에 있어 선물로 품격이 있으며 여성용충지갑 95,000원 남성용충지갑65,000원 전화로 신성하면 보내준다.

■문의전화 02-741-4488
 농협 032-12-193445 이상하
 http://club.cyworld.com/kapilla

점안식과 축원불공 용어해설

점안식은 부처님의 불상, 진영, 법구등에 쓴 스티플로 하여금 부처님의 영험이 나타나게 하는 불교의사이며 축원불공은 부처님 법구가 들어있는 상품등을 사용하는 분의 소망과 소원을 이루어 주는 불교 의식이다.